

# 전후세대의 문화의식과 가치관

—70년대 이후 대학문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권영민\*

<차례>

- |                         |                  |
|-------------------------|------------------|
| I. 머리말                  | III. 산업화과정과 문화운동 |
| II. 해방이후 사회변동과 문화<br>의식 | IV. 대학문화의 이념적 경향 |
|                         | V. 맷는 말          |

## I. 머리말

필자에게 주어진 논제는 전후세대의 문화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검토이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전후 한국사회의 모든 문화현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검증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문화라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획득한 생활양식의 총체를 뜻한다는 점을 생각할 경우, 전후의 사회변동과 문화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이 글에서 전제하기란 곤란하고 필자 자신에게도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후 세대의 문화의식과 가치관이라는 논제가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알면서 전후의 사회변동과 문화현상을 전후세대라는 특정의 사회집단에 국한시켜 논의한다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우선 전후세대라는 말이 지칭하고 있는 사회계층의 범주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문화현상을 어떠한 각도에서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가치관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실천적 관심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의식과 생활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는 설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필자는 전후세대의 문화의식과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70년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

\* 서울大 人文大, 國文學

학생들의 문화운동에 대한 논의로 집약시켜 보고자 한다.

## Ⅱ. 해방이후의 사회변동과 문화의식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민족분단의 고통을 겪어 왔다. 6·25전쟁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싸움 속에서 한국민족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고, 민족의식 자체의 이념적 분열을 초래하였다. 휴전과 함께 분단상황이 기정 사실로 고정화되자, 이러한 상황적 조건이 한국사회 발전의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분단상황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한 자기성장을 보여 왔다. 4·19학생혁명 이후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가치체계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그 실천에 대한 신념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체념에서 벗어나 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히 논의된 근대화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한국사회 전반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 몰아 넣었으며, 충격적이라고 표현 할만한 여러가지 사회변동을 야기하였다. 예컨대, 경제성장과 근대적인 산업체제의 확립, 도시의 발달과 대중문화의 확산, 사회구조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다양화, 능률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등은 모두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한국사회의 변모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가치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자본의 과다한 수용과 의존으로 인하여 외채의 부담과 함께 경제운용의 매판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켰고, 경제적 토대의 취약성을 여전히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산업화의 강렬한 추진이 통치권력의 강화와 함께 정치사회적 통제로 확대되면서 갈등과 대립을 낳게 되었다.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의 추진이 이루어지는 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의 지체되는 층면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적 격차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시노동자의 종대와 농촌의 소외, 노사간의 갈등과 소득의 격차, 산업공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강력한 통치력만을 행사하고자 했던 권력층은

근대적인 민주주의적 정치의 실천마저 유보하는 횡포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으며, 서구적 근대화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의 근대화(물론 이 용어 자체가 어느 정도 치밀하게 개념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란 다양한 정치체제 밑에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은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그 거대한 영향이 서구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합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의 흐름을 촉진시켰으며, 서구사회의 근대적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서구의 그것과의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격차는 근대화 자체의 당위론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론적 정통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거듭 질문하게 하였다. 특히 지난 7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근대화의 실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이러한 반성적 움직임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의 통치권자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근대화가 보여주고 있는 불구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혼란과 불균형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조건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여러가지 불합리를 넣게 하였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다양성을 파괴해버리는 의식의 양극화 현상이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혼예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화의 이상적인 추구는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한국사회는 지역적인 차이, 소득의 차이, 지식의 차이, 이념의 차이 등에서 오는 대립이 삶의 불균형 속에 갈등으로 자리잡고 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를 누린다는 것은 결국 분야에 따라 이념에 따라 그 방법과 의식이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한국사회는 그 발전의 과정에서 분명 다양하고도 활발한 변화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정치적 태도와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인 속성과 대립이 의식의 양극화 현상으로 치달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보여 준 정치권력의 일방적 확대가 삶에 대한 의식의 자율성마저 간섭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사상, 학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사상, 학문의 자유를 동시에 제한해 버리는 조치가 자행되면서 위축되어버린 의식은 그 자체의 편향성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의 기능을 제한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받아 들일 수 있고, 상대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바로 서기도 어려운 상황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인 혼동과 갈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획득하고 있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생각할 경우, 그 과정적 속성이 더욱 문제시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문화의 창조적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문화현상의 표면적 진단에서 얻어질 수 있는 반성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한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요구보다 특수성에 대한 강조로 치달은 느낌이 없지 않다. 이것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사이의 혼돈에 대한 일종의 문화의식적 갈등에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민족문화에 대한 지배권력층에서의 논의는 문화 자체에 대한 짚이 있는 이해보다는 민족문화의 이름을 앞세워 강압적인 통치권의 비호를 자행했고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논리적 함정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한국문화가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특성은 강조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인류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별론적 고찰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둘째, 한국문화에 대한 논의가 특수성에 집착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삼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문화의 자율적인 발전과 전개를 저해하는 정치권력 차원의 간섭이 문화전반에 걸쳐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문화부분의 모든 활동은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뒷받침되고 조정되어 왔다. 이것은 보는 이에 따라 관점은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산되고 혼란된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 폭넓은 전개를 가능하

게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문화정책이 전시효과에 치중한 문화행사에만 관심을 부여 함으로써 문화창조의 내면적인 노력과 무관하게 수행되었다든지, 문화의 자발적이고도 비판적인 역량을 흡수해 버림으로써 권력 귀속적인 문화배양에 만족했다는 반성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모든 문화활동의 가치가 문화적 창조의 열정과 그 지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기 보다는 정치원리적 차원에서의 이념성에 의해 규정되어 버리고 있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문화영역에서의 체제와 반체제의 대립, 제도권 안의 문화와 제도권 밖의 문화를 넣게 했고, 상호 배타적인 가치관을 내세우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문화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 실천에 소극성을 보이면서 과격한 이념주의가 문화운동의 편향성을 주도했던 것이다.

### Ⅲ. 산업화 과정과 문화운동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정치권력의 조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러한 사회문화적 파행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7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삶의 현실이 정치사회적 조건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체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최근 민주화의 요구에까지 널리 확대되고 있다. 비판적 지식인과 행동적인 청년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이러한 실천적인 운동은 정치체제의 폐쇄성에 대해 과격한 도전과 과제적인 충동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획일화 되고 있는 문화현상과 체제 순응적인 사회질서 전반에 걸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층의 청년집단에서 특히 폭넓은 지지기반을 얻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 못지 않게 한국사회에 내재해 있는 사회구성원 자체의 의식의 단층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때문에 대학생층의 청년집단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사회현상에 가장 심각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행동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만한 어떤 자료와 근거도 필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실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정후를 결코 가볍이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대학을 중심으로한 청년층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또는 문화적 의식의 지향 등은 몇몇 사회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거나 검증된 바 있으며,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실천적 관심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영역 또는 문화활동에 국한시켜 이러한 현상을 검증해보고자 할 경우, 이 문제는 전체문화 속에 대학문화 또는 청년문화라는 말로 지칭될 수 있는 부분문화 내지는 반문화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대학문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긴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대학사회의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 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와 문화현상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문제의 진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 대학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상적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 열정에 싸여 있는 대학문화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대학은 그 자체가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오늘날의 대학은 그 자율성이 위축됨으로써 대학문화의 창조적 에너지가 손상되어 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70년대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대학은 외형적으로 확장되었고, 그 활동 영역도 넓어졌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질적인 차원에서 대학이 문화전반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대학은 입학시험을 치루고 들어온 학생들을 훈련시켜 기성사회로 배출시키는 취업준비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버림으로써 학문과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기술과 실용적인 지식의 전달에 매달리게 되었다. 기성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테크닉의 연마에만 주력하는 대학교육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 대학문화의 창조적인 공간이 확립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정치권력의 횡포와 관료주의적인 통치방법이 대학의 자율을 억제하면서 대학의 권위와 독자성과 학문의 자유는 한정되어 왔다. 대학생의 주장과 행동은 미숙하고 무모하고 충동적인 애들의 짓거리로 무시되었고, 위험스럽고 며칠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

사회의 윤리적 척도에 의해 간단히 거부되곤 하였다. 이상과 현실의 엄청난 격차를 자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동안, 대학문화는 창조적인 정열 대신에 기존의 체제와 문화에 대한 반발로 치달았고, 그것이 정치세력에 대한 반항과 비판으로 모아졌다. 70년대 중반 이후 대학문화는 반체제의 정치문화 일색으로 변해 버렸으며, 그 결과 지성과 낭만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문화주의적인 일체의 학생활동이 대학 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필자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대학신문과 학생 중심의 중요 학회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화제의 대부분이 첫째, 민주체제의 확립, 둘째, 경제의 발전과 소득분배의 균등, 세째, 민족 주체성의 재인식 등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성의 현실 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모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사회문화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치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또 다른 반발이 생기고 과격한 행동양식으로의 대응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대학의 현실을 한국적인 대학문화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이념·지표·형식·방법 등이 모두 기존의 주도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요건으로 가득 차 있음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 오늘의 대학문화는 젊은 대학생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민중의식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채워져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학생들은 민중과 함께,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학생으로서의 선택적 위치 대신 스스로 민중의 대열에 서고자 하였다. 간단히 웃어넘길 수 있는 예가 될지 모르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학생의 상징으로 가슴에 달고 다니던 뱃지를 대학생 스스로 떼어버렸고, 한때 통기타와 생맥주로 통칭되던 이른바 청년문화의 영역에서 민중의 현실로 뛰어 들게 되었다. 민중문화는 물론 대학생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70년대의 정치적 상황에 도전했던 일부 반체제의 문화인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지식층에게 그 공감대를 확대하게 되자,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민중문화의 실천적 주체의 입장에 서기에 이르게 되었다. 아직도 학계 일부에서 민중론에 대한 여러가지 상반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중문화운동은 대략 다음

과 같은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민중문화운동은 좁은 의미의 문화운동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현실적 모순에 대한 극복 의지를 구현하면서 직접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이념적 과정성과 실천전략이 문제시되곤 하였다. 민중문화운동이 대학사회에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은 그들이 주관했던 모든 문화행사와 축제 등에서 유흥적, 향락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거시켰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축제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던 카니발, 쌍쌍파티가 사라졌고, 상업주의적 소비문화가 대학가에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모든 문화행사는 낭만적 충동보다는 이념적 열기에 휩싸이게 되면서 대부분 정치적 시위로 연결되었다. 사회적 실천운동으로서의 민중문화운동은 일부 학생들에 의해 노동자 계층과의 유대가 확립되어 대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민중문화운동은 민중문화 형식의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70년대 초기에서부터 대학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 주체의식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면극, 판소리, 민요 등의 전통예술형식이 대학생들에게 널리 유행하게 되었고, 기존의 예술적 형식도 그 소재와 주제영역이 민중적 삶에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대학생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민중문학, 민중예술, 민중음악, 민중연극 등의 명칭은 아직도 기성문화인들 중의 상당수가 신경질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들이지만, 대학생들에게만은 그것이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졌으며, 민중문화, 민중예술이 모두 민중을 위해, 민중에 의해 창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적 소재에 집착하면서 기법적 시험성이나 새로운예술적 시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세째, 민중문화운동은 문화의 민주화와 공동체 문화의 확립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소수의 지식층이나 권력층이 누려온 문화의 모든 영역에 대한 민중의 참여를 문화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는 민중문화운동은 문화적 기회의 균등화와 그 동질성의 회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문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문화적 귀족주의나 보수주의를 반민중적인 것으로 배격하며, 민중의 문화적 감수성의 신장을 저해하는 모든 편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IV. 대학문화의 이념적 경향

오늘날 한국의 대학문화가 민중의식이라는 하나의 이념과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필자의 지적은 어떤 의미에서 다소 과장적일지도 모른다. 다수의 대학생들이 보여온 무관심주의와 비관적 태도를 예로 들어 필자의 견해에 반박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이에 대응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필자는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대학문화로서의 민중문화운동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문제성에 대해서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문화는 젊음의 경쟁과 낭만을 건설적으로 승화시키며, 다양한 욕구와 상이한 행동 양식을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결집시키는 데에 그 본질적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의식이라는 하나의 이념을 내세움으로써 대학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 민중의식이란 폐쇄적인 정치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속성마저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과격성을 노출하기 마련이다. 민중문화운동이 지식인의 문화적 역할과 전문적 기능을 배타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바로 그 이념적 과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문화로서의 민중문화운동은 지나치게 실천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의 실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중시할 경우 예술성과 실험성을 의도하는 문화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순수주의와 이상주의는 배격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문화의 민주화를 내세우며 시작된 민중문화운동의 본질과도 배치되는 것이지만, 민중문화운동을 논하는 글 속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화적 전문성이나 세련성에 대한 무관심이 문화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비관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대학문화가 대학사회만이 아니라 기성의 사회

현실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이것은 특히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돌출해 있었던 정치적 불구성에 격렬한 대응을 보인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민중문화운동이 기존의 제도적 문화권과 충돌하면서 얻어낸 다음과 같은 문화의식의 변화양상은 대학생 계층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 전체에 걸쳐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에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문화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계층만을 위해 존재한다거나 특수한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라는 좁은 문화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적인 삶과 그 근본질서를 민중문화의 토대로 삼고 있으며, 민중이 문화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나 특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문화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그 현실적 실천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적 지향이 그 자체의 부정적 요소로 지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현실 전반에 대한 윤리적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민중문화운동의 이념으로 내세워진 민중의식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거부하고 비판하면서 민주화의 성취를 지향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조리를 배격하면서 인간화의 실현을 촉구하기도 한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얻어진 경제성장과 이득이 균등하게 배분될 것을 주장하며, 모든 문화활동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길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중의식의 성장은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민중의식의 과격한 요구가 정치체제내의 지배계층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긍정적 의미가 전혀 반대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의 민주화, 사회의 인간화, 경제의 평등화, 문화의 자유화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를 새로이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확실히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째, 민중문화운동은 대학 내에서만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도 많은 젊은 문화인들에 의해 실천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문화와 기성의 문화가 서로 이어지면서 문화적 연관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동체문화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대학문화는 대학이라는 특수집단에서 이루어진 부분문화이기 때문에, 흔히 그 가치와 규범의 불완전성이 지적되어 왔고, 그 충동적인 요건과 민감성이 문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중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학문화의 전개 양상을 보면 민중문화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예컨대 문화적 전문성 문제, 실천방법론, 민중적 양식의 창조문제 등이 모두 대학생계층에서부터 제기되기도 하였고, 그것이 기성의 문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네째, 민중문화운동을 통해 대학생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고유성과 외래문화의 영향력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외래문화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자, 전통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특히 미군 주둔 이후 수입된 미국대중문화의 위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못지 않게 그 파급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외래문화의 문화적 침식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를 제3세계적 관점에서 새로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자칫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비약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문화적 자주 역량의 신장을 생각할 경우, 그 의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V. 맷 는 말

필자는 이상과 같이 전후 한국사회의 변동과 함께 70년대 이후의 대학문화의 전개과정을 민중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소략하게 나마 검토해 보았다. 대학내에서의 민중문화운동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거기에 투영된 대학생들의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해명해 보려는 필자의 의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대학문화가 대학문화로서의 다양성과 조화를 잃어버린 채, 정치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대학문화로서의 민중문화운동이 갖는 의의와 그 한계를 나름대로 지적하면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개방적인 민주체제의 확립만이 대학문화의 다양한 창조적 기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리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화의 과

정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정치적 수난이라고 할 것이다. 근대화의 추진과정 속에서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가 제도적인 차원에서나 의식의 차원에서 차질하게 실행되었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면해 있는 대학문화의 문제성을 대학사회의 문제로만 고정시키려는 편협성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긴장과 그 문화적 혼돈을 먼저 문제삼아야만 한다. 근대화와 민주화가 조화로운 진전을 보일 경우 대학문화의 반체제적 정치주의적 편향도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새로운 전진한 가치관의 확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具仲書

1981 「分斷時代의 文學」, 傳藝苑.

金炳翼

1982 「知性斗 文學」, 文學斗 知性社.

金禹昌

1981 「地上의 尺度」, 民音社.

金柱演

1980 「大衆文學斗 民衆文學」.

白樂晴

1985 「民族文學斗 世界文學」, 創作斗 批評社.

成民燁(璽)

1984 「民衆文學論」, 文學斗 知性社.